

중국 우유표준 변경에 따른 논란

작성일자: 2011.06.29

베이징aT센터

2010년 4월 새로운 중국 생우유표준 발표함, 1986년 제정된 국가표준은 100그램 생우유 중 우유단백질의 함량이 2.95%, 세균수량은 ml당 50만개 이었으나 2010년 4월 제정된 국가표준은 단백질 함량을 2.8%로 낮추었고, 세균수량은 200만개로 변경함. 이는 미국, 유럽 표준의 20배에 달하는 수치로 각 계층의 불만을 불러일으킴, 최근 열린 <남방 파스테르 살균처리우유 발전연구포럼>이후 중국 네티즌 사이에 중국우유 표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.

□ 생우유업계 현황

- 중국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72%는 농가에서 생산하고 농가에서 대기업에 공급하는 시스템임
- 북방의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한 우유는 단백질함량이 1986년 기준인 2.95%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
- 사육환경이 좋지 않아 젖소의 유방암발병율이 높음.
-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우유에 식품첨가제 첨가량이 많음.

□ 표준 변경관련 주요 의견분쟁

- ① 중국 우유업계의 현황은 나라의 실정에 따라야 함. 표준을 높일 경우 농가에서 생산하는 모든 우유는 표준에 맞지 않음.
- ② 중국 우유표준은 최대생산업체인 이리, 명뉴 및 중국유제품공업협회 등이 좌지우지하고 있음